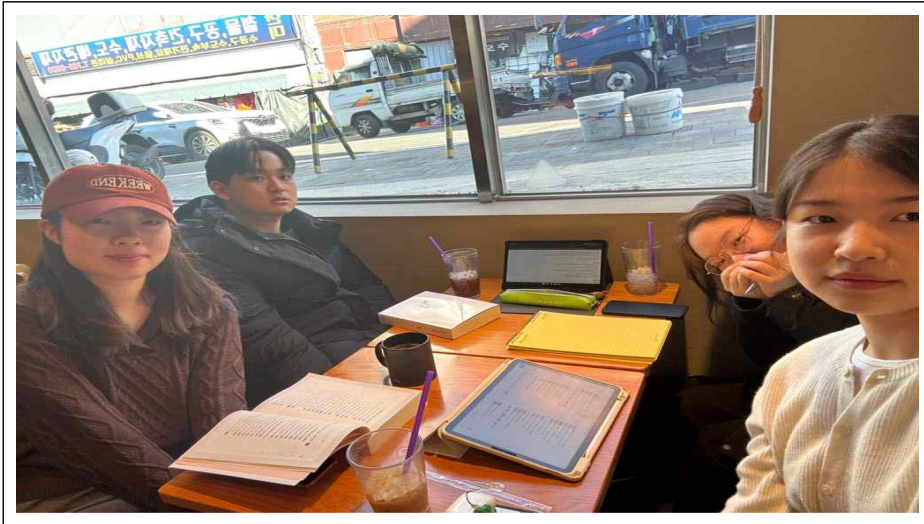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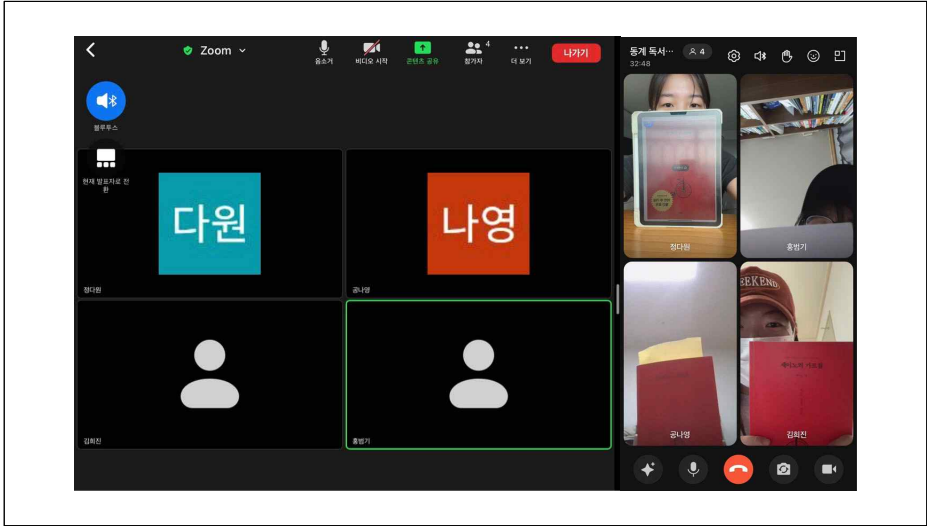


#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다독다독'조

1주차	일시	2023년 12월 23일 오후 1시 커피빈 한성대입구역점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홍범기(1711123)	<u>○</u> / X
		공나영(1911064)	<u>○</u> / X
		김희진(2031351)	<u>○</u> / X
정다원(2371272)	<u>○</u> / X		
진도	도서명: 세이노의 가르침	진도페이지:	p. ~ p.
토론 내용	 <p>[좌측부터 김희진, 홍범기, 공나영, 정다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은 조원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아이스 브레이킹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다음 주 모임부터 각자 감상을 공유하고 토론하기로 결정했다.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감상보다는 각 토론 주제에 맞는 의견 공유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해당 토론 주제는 단순 확인 문제가 아닌 클럽원들의 의견이 모두 다룰 수 있는 질문을 선택하기로 했다. (공나영 학우)</li> <li>- 1월 25일에 있을 발표의 내용 구성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각 클럽원들에게 할당된 범위에서 나올 1~2개의 토론 주제에서 가장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던 주제를 일부 선택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홍범기 학우, 공나영 학우)</li> <li>- 테마도서 "세이노의 가르침"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총 3회에 걸쳐서 각각 1부씩 진도를 나가기로 했다. 다음 주 진도인 1부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세 번째 부분이 양이 많아서 그 부분을 두 명에게 할당하였다. 각자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홍범기 학우가 가장 먼저 두 번째 부분인 '내 학력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를 선택하였다. 홍범기 학우는 세 번째 파트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는데, 제목인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에 따라서 '어떤 일'에 대한 파트 하나, '어떻게 해야 할까' 파트 하나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김희진 학우는 세 번째 부분의 '어떤 일' 부분을, 정다원 학우는 첫 번째 부분인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를, 공나영 학우는 세 번째 부분의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 파</li> </ul>		

		트를 맡았다. - 오늘의 주된 토론은 아이스 브레이킹이었다. 각자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누었고, 음식과 음료 취향, MBTI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	--	--

2주차	일시	2023년 12월 30일 오후 1시 비대면- 줌, 페이스톡 활용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홍범기(1711123)	○ / X
		공나영(1911064)	○ / X
		김희진(2031351)	○ / X
	정다원(2371272)	○ / X	
진도	도서명: 세이노의 가르침	진도페이지: p. 25 ~ p. 247	
		 <p>[좌측 상단부터 정다원, 홍범기, 공나영, 김희진]</p> <p>  감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범기: 수험생활이 길었기 때문에 유독 이 파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에서 나온 것과 같이 저는 유독 학벌이 중시되는 집단에 집착하여 좋은 대학에 미련을 못 버려 여러 번의 수능을 봤지만 제대로 된 수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나가고 보니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만 들어 자주 자괴감이 들곤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제는 이런 생각에 벗어나 학벌이 필요하지 않은 곳을 공략하여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선을 돌려보려고 합니다.</li> <li>• 공나영: 이제 막학기를 앞두고 있는 졸업예정자로서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저 막연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해왔었는데, 일 자체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그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알게 되었다. 돈을 적게 벌어도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는 생각도, 돈을 적게 벌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어떤 일이든, 특히 문과 계열의 일은 10년만 일하면 누구나 전문가 수준이 된다는 말이 있다. 세이노 또한 '그저 돈을 많이 버는 일이면 된다'고 말하면서 '범죄가 아닌 이상 일의 종류를 가리지 말라'고 말한다. 조금은 늦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는 4학년 막학기를 조금은</li> </ul>	
	토론 내용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김희진: 나는 어떤 것에 대한 답을 명료하게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 첫 장부터 성격에 맞는 일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일을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직 사회생활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직장을 구할 때 나의 성향에는 어떤 일을 하면 잘 맞을지 어떤 유형의 상사를 만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나의 몸값을 올릴 수 있을지 등등 세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준 점이 미래의 해답을 제시해주는 느낌이어서 형광펜을 치고 읽을 만큼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많이 사시고 세상을 분석적으로 사신 인생선배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 정다원: 늘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여유를 가지며 사는 삶을 추구하는 나에게 세이노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부정당어리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정도의 에피소드도 있었으나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내가 너무 편하게만 살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조언처럼 현실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알아봐야 할 거 같다.

| 토론 | 1부 <아무것도 가진게 없다고 느껴질 때>

• 1-1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제: 직업상 받게 되는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된 문제에서 페터악스트 교수와 세이노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페터악스트 교수는 장수비결이 게으름이라고 하였고, 세이노는 게으름이 무지의 뿌리라고 하였는데 어떤 의견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의견: 어떤 한쪽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긴 어렵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에도 일에만 몰두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게으름은 필요하나, '새하얗게 불태웠다'라는 말이 있듯 젊을 때 휴식은 잠깐 제쳐두고 무언갈 정말 열정적으로 해보는 것도 의미가 크다. 뭐든 적당히가 중요하다.

• 1-2 '내 학력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주제: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사회에 필요없는 부분들이 많은지

의견: 실생활에 잘 쓰이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돌아서면 배웠던 걸 금방 잊어버리기 십상이지만, 어찌됐건 기존에 짜여진 커리큘럼은 다 의미가 있고 순차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과정을 조금 추가해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1-3-(1)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제: 피로과잉 속에서 쉬는 것도 능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책에서 세이노는 일부는 자기 계발을 위하여 '그 주말의 황금시간을 거의 모두 바치면서 일과 관련된 능력과 지식을 '독하게' 향상시키고 있다' 고 말하는데 정말 쉬는 날과 자기계발의 분배를 어떻게 해야할까?

의견: 자기 계발과 휴식의 구분은 기준도 모호하고 딱 잘라 말하긴 힘들다. 최근 이른바 '갯생살기'가 유행하면서 사람들의 능력치가 높게 평준화되고 있다. 모두가 휴식을 원하지만 주 5일제에 만족하고 남은 이틀을 자기계발에 힘쓰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버티기 현실적으로 힘들다.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과 기준에 맞게 휴식의 정도를 조절하면 좋을 것이다.

• 1-3-(2)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제: 좋아하는 일 vs 잘 하는 일 / 과정 vs 결과 -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의견: 돌고돌아 결국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었다는 경험을 말한 조원도 있었으나 대다수가 잘 하는 일을 택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의무를 더하면 부담감이 생길 수 있는 반면, 잘 하는 일은 하다 보면 자존감도 향상되고 더 좋은 성과

		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만 보고 과정을 무시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그렇지만 결과가 다르지 않는 과정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과정이 부실하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르는 성취감이 크기에 결과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결과를 따지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고 둘 중 하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긴 어렵다.
--	--	--

3주차	일시	2024년 1월 6일 오후 1시 비대면 - 페이스북 활용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홍범기(1711123)	○ / X
		공나영(1911064)	○ / X
		김희진(2031351)	○ / X
		정다원(2371272)	○ / X
진도	도서명: 세이노의 가르침	진도페이지: p. 251 ~ p. 420	
토론 내용	<div data-bbox="531 757 1461 1283" data-label="Image"> </div> <p>[좌측 상단부터(시계방향): 홍범기, 정다원, 김희진, 공나영]</p> <p>  감상   2부 부자로 가는 길목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범기: 이 파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과 원인 그리고 왜 세습되는지에 대해 얘기가 나와 있다. 작가는 가난한 부모의 부적절한 사고의 행동이 가난 세습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좋지 않은 사고방식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어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에게도 사고를 교정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인을 교육시키기는 어렵다. 그래서 생각한 것은 일찍이 학교에서 세이노가 강조하는 삶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탈무드와 같이 말이다. 단순히 무의식 속 한켠에 쌓이는 교육이 아닌 지속적으로 머릿속으로 상기시켜 행동하게 되는 교육을 하게 된다면, 처음은 미미하겠지만 나중에는 점점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li> <li>• 공나영: 평소 YOLO와 FIRE를 합쳐서 생각했었다. 고3 때도, 공시생 시절에도 하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삶에 익숙하다 보니 어떤 한 시점이 끝나면 완전히 봉인해제가 되어 버리는 인생을 살아왔다. 그렇게 해서 빨리 돈을 벌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본인이</li> </ul>		

부잣집 자식이 아니라면 젊은 시절에 거의 안 쓰다시피 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미래에 부자로 살라고 말한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두 가지가 생겼다. 첫 번째로, 꼭 부자가 될 필요가 있을까? 부자를 생각하면 끝이 없다. 즉,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나이가 들어서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는 공감하지만, 그 돈을 길어봤자 20, 30년만 존재하는 젊은 시절을 희생하면서까지 모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젊은 시절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같은 경험이어도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규직에 취직하여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형편에 맞게 YOLO 라이프를 즐기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 김희진: 원래 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없고 욕심도 없는 편이다. 물론 무소유라는 뜻은 아니며 저축하는데 큰 흥미도 없고 버는 만큼 쓰는 삶에 익숙해 요즘 재테크나 주식 같은 트렌드에 큰 영향을 안 받고 살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책을 보니 '경제 관념을 쌓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편하게 편하게, 남들이 뭐라든 내 시야대로 사는 것보다 주위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흐름을 파악하며 살아야겠다고 느끼게 되었다. 특히 비행기 이코노미, 삼등석에 앉는 사람과 일등석에 앉는 사람이 관심 있게 보는 신문 기사가 다르다는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추구하면 점점 격차가 벌어지겠구나.'라는 경각심도 가지게 되었던 것 같다.
- 정다원: 솔직히 '부자'라는 타이틀에 대한 편견을 조금 갖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대로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봤다는 것이 한편으론 부끄럽게 여겨졌다. 앞으로 바람직한 소비 습관, 마인드 등 배울 점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춰야겠다. 특히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하는 요즘의 추세에 이끌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나만의 것을 추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이를 통해 과소비는 지양하고 올바른 소비 패턴을 정착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 토론 |

### 1. '돈, 똑바로 알자'

주제: 현재의 행복 vs 미래의 행복

요약: 먼저 인생을 비스킷 통으로 비유를 들어 쓴 것을 먹고 나중에 단것을 먹으면 더욱 달 듯이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암울한 미래가 예상될지도 모르는 상황속에서 막연하게 나중에 위해서만 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더해 한 조원은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자기 계발을 위해 달려오면서 뒤돌아보니 굳이 이렇게까지 꼭 참고 살아야 했나 회의감이 들 때도 있다는 경험을 통해 요즘은 현재의 행복을 선택하고 싶다고 한다. 이처럼 두 선택지 각자 생각이 필요한 장단점들이 있어 조원들 모두 명확하게 고르기 어려웠다. 결국, 부자가 되는 길을 택할지 현재의 삶도 챙기는 안정적인 길을 택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므로 자신이 원하는 길을 택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 2. '성공을 향해 나아가려면'

요약: YOLO족과 FIRE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견: 용어 설명부터 하자면 나중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YOLO족. 부자인 미래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삶은 원해 40대 전후에 빠짝 벌어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하는 자들이 FIRE족이다. 먼저 여러 문제로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YOLO를 택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미래에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현재를 즐기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하며 공감하는 말들도 나왔다. 그러나 YOLO의 특성상 나중의 일은 생각지 않는 무책임함을 우려하여 조원 모두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그래서 조원들은 그나마 늦지 않은 나이까지 벌고 은퇴하여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은 사는 FIRE족이 오히려 더 나올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 3. ‘나는 가난한 사람인가?’

주제: 엄 씨에게 주변에 세이노처럼 말해줄 사람이 있었다면 미래가 달라졌을까?  
 요약: 책에 생활고로 인해 일가족 동반 자살을 주도한 엄 씨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다. 작가는 엄 씨를 그의 삶에 대한 지혜와 능력 부족으로 인해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과연 토론 주제와 같이 조언을 해주거나 교육을 받게 되면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까 하며 토론이 진행되었다. 처음은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실제로 달라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다들 고민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한 조원은 이러한 비극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기에 학교에서 실용적인 지혜를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장은 눈으로 효과가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한다면 점점 많은 이들이 성숙해져 나은 미래가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다른 조원은 봉사활동 경험에서 남을 돕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언급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토론을 통해 내린 결론은 삶의 지혜를 길러 나갈 수 있는 조기 교육의 필요성과 이러한 교육이 즉각적인 가시적 효과를 보이지 않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효과가 있는 한 지속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4. ‘부자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주제: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요약: 작가는 과소비를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소비하거나 부자들의 소비를 모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 조원은 심리학책에서 읽은 내용을 토대로 외부적으로 과하게 치장하는 행동은 내면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심리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조원들도 이에 동의하며, 주변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필요 이상으로 과시하며 자신의 내면의 열등감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본 경험을 언급했다. 그리고 한 조원은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가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명품을 치장하여 소비를 조장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진짜 멋으로 착각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올바른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미디어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실제 필요에 근거한 소비 습관을 지녀야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유명 인사들의 책임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4주차	일시	2024년 1월 13일 오후 1시 왕십리역 인근 나인헤르츠 카페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홍범기(1711123)	○ / X
		공나영(1911064)	○ / X
	김희진(2031351)	○ / X	

		정다원(2371272)	O / X
	진도	도서명: 세이노의 가르침	진도페이지: p. 421 ~ p. 632
	토론 내용	<div data-bbox="525 264 1458 788"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667 808 1321 842">[좌측부터(시계방향) 공나영, 홍범기, 정다원, 김희진 ]</p> <p data-bbox="491 893 1023 927">  감상   3부 삶의 전반에 조언이 필요할 때</p> <ul data-bbox="491 981 1493 2072"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491 981 1493 1272">• 홍범기: 글에서 다루는 땅콩회항사건은 당시 재벌의 횡포와 월권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사건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작가는 이 사건에 대해 냉정한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갑의 횡포 뿐만 아니라 직원의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행동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람들이 갑질에만 치중하면서 다른 본질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감성 중심의 판단을 하는 요즘 사회의 문제를 꼬집는다. 이러한 자세로는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을 통해 나는 항상 문제를 볼 때 다각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li> <li data-bbox="491 1323 1493 1653">• 공나영: 일단 이번 파트는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서 크게 임팩트가 있는 부분은 찾기가 쉽지 않았다. 초반의 독서법에 대한 부분이 그나마 가장 인상깊었는데, 이는 얼마 전에 읽은 《이동진 독서법》의 내용과 많이 유사했기 때문이다. 한 분야의 책만 읽지 마라, 책을 사서 읽어라, 더럽게 읽어라 등 좋은 의사를 만나는 법, 변호사를 만나는 법은 2004년에 쓰인 글로, 내용과 워딩 모두 2024년과는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의사, 변호사 파트를 읽으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더 굳히게 되었다.</li> <li data-bbox="491 1704 1493 2072">• 김희진: &lt;나는 평등주의가 싫다&gt; 파트에서 “물론 경쟁에서 탈락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관심과 정책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인하여 약자가 된 처지라면 그에 대한 징벌은 당연히 짊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자신의 분수를 알고 남들이 놀 때 놀지 말고 남들 잘 때 자지 말고 노력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라고 말하는 부분과 &lt;망년회를 하지마라&gt; 파트에서 “새롭게 각오를 하고 싶다고? 지금이다! Just now! 1월1일부터 하겠다는 각오는 그저 단순한 희망이고 계획일 뿐이다.”라고 뼈 때리는 말은 나도 읽으면서 수긍이 되는 부분이었고 책임감을 더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구절이었다. 하지만 이번 3부는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공대에 대하여 처럼 현재 나의</li> </ul>	

모습과 위치와는 큰 관련이 없는 얘기라서 가볍게 읽고 넘겼는데 중간에 심청이는 효녀인지에 관한 부분 중, “선의라는 것은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나 이해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상대방만을 위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구절을 보고 인간은 자연스레 ‘기대’라는 감정을 쉽게 하는데 그걸 제지하며 선의를 베풀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읽었던 부분이였다.

- 정다원: 운명적 사랑은 없고 성적 욕구에 의한 이끌림이기에 그 기간은 2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여러 부정적 예시를 들었는데, 늘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아 어떤 것이 옳다고 판단하긴 어렵고 이런 의견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가면 될 거 같다. 하지만 기회는 사람이 준다는 이야기에 크게 공감하여 집중해서 읽었는데, 언제 어디서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는 만큼 늘 나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힘써야겠다. 법을 어느 정도나 지켜야 할까? 부분에서는 정말 양심적으로 법을 한번도 어기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었고, 나였어도 법을 어겨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성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됐다.

### | 토론 |

#### 1. ‘법은 어느 정도나 지켜야 할까?’

주제: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지만 이로 인해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법을 어길 것인가? 그래도 지킬 것인가?

이 토론에서의 전제는 ‘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지 않는다면’이라는 가정이 걸려서 더욱 흥미로우면서도 고민이 많은 주제였는지 조원들 모두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나를 포함한 다른 조원은 걸리지 않는 한 이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위법을 해서 이득을 취할 것 같다고 얘기하였고 반대로 한 조원은 추후에 적발되어 물게 될 징벌이 더욱 두려워 법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였다. 나머지 한 조원은 이득이 크면 클수록 유혹에 흔들릴 거 같다고 하면서도 순간의 욕심으로 양심을 저버리게 된다면 평생 후회만 남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 항상 조심하도록 노력할 것 같다고 하였다. 각자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재밌으면서도 탈세를 해서 적발된 부유층들의 모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양심과 관련된 주제라 모두 쉽사리 결정을 하기 어려워했다.

#### 2. ‘성공할 남자 고르는 법’

주제: 사소한 행동으로 그 사람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조원들은 일부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지레짐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나, 정말 사소한 행동들이 그 사람의 인상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 또한 사람의 인상도 자꾸 쓰는 근육이 발달되어 주름으로 나타나듯 그 사람의 평소 습관이 모여 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를 보고 열을 확신할 순 없지만 스스로 그 사람에 대한 판별은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다른 한 조원은 일부만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해주었는데 최근 연예인 비극 사건만 봐도 한 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며 날씨가 너무 더워 기분이 짜증이 나는 거 처럼 상황이 좋지 않아 부정적인 모습이 보여질 때도 있기 때문에 선부른 판단보다는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전해주었다. 모든 조원들의 얘기를 총합해봤을 때, 자신들만의 판단을 근거로 단면만 보고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선을 긋게 될 수도 있으나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거나 강요하지만 않는다면 크게 나쁠 거



같진 않다.

3. '심청이는 효녀가 아니었다'

주제: 기부를 하고 있다면 어떤 마음에서 기부를 하고 있는가? 진짜 세이노가 정의내리는 선의라고 할 수 있는가?

4명의 조원들 중 2명이 현재 기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조원은 기부를 함으로써 금전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큰 이득을 바라는 것보다는 기부를 하고 난 후의 뿌듯함 때문에 계속해서 기부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동기의 기부는 자신의 다른 이득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세이노가 말한 순수한 선의에 의한 기부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하였다. 또 다른 조원은 2년동안 한 기관에 후원을 해오면서 나중에 자신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며 후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였다. 과연 세이노가 이 조원의 후원동기를 들었을 때 선의라고 했을까?

무언가를 아무 대가 없이 베풀어준다는 것은 인간의 기대라는 감정이 마음대로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말만큼 쉬운 행위는 아닌 것 같다.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홍범기 (1711123)	<p>독서모임에 처음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책을 개인적으로 즐기지만 하지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는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활동이 기대되고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p> <p>평소 책을 읽을 때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통해 작가와 씨름하다 보면 아예 엉뚱한 생각으로 빠지거나 다소 편협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임을 통해 조원들의 다양한 감상과 토론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p> <p>4주 동안 함께한 독서모임은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음미하며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p>
	2	공나영 (1911064)	<p>이전에도 하고 싶었던 독서클럽 활동을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다.</p> <p>무엇보다 국내도서 4위, 자기계발서 1위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lt;세이노의 가르침&gt;을 읽는 기회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이었다.</p> <p>혼자 읽었더라면 앞부분 몇 페이지 읽다가 책장 어딘가에 박혀 있을 운명이었을 &lt;세이노의 가르침&gt;을, 팀원들과 함께 읽어서 더 빠르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p> <p>매주 각자 다른 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팀원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내 생각도 점검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고칠 수 있었다.</p> <p>각자 다른 나이, 다른 학년, 다른 전공의 팀원들이 모여서 한 책을 읽으면서 나누는 대화는 새롭고 신기하고도 흥미로운 경험이었다.</p> <p>학기중 독서클럽도 팀원들의 의견과 시간이 맞다면 같은 팀으로 또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p>
	3	김희진 (2031351)	<p>평소 책을 읽고 싶다고 항상 생각을 했지만 의지가 부족해 책을 완독한 기억이 없고 책을 빌려도 미뤄만 뒤서 연체되기 일쑤였는데 소장님이 같이 독서토론을 해보지 않겠냐는 권유 덕분에 책 한권을 완독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p> <p>자기계발서, 특히 자산과 관련된 도서는 큰 관심이 없어 이 책을 읽는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 같아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걱정을 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흥미있었고 도움도 많이 된 책이었다.</p> <p>꼭 '부자가 되는 법'에만 관련된 책이 아니라 부자, 또는 성공한 사람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와 어떤 다짐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주치는 인생의 질문들에 대한 성공한 사람의 조언이 깃들어 있어 가끔 살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해설지같은 느낌도 들었다.</p> <p>이 책을 다 읽고 나니 두꺼운 분량의 책 한권을 다 읽은 것도 뿌듯하고 부자의 생각과 마인드는 어떠한지 알게돼서 놀랍고, 마지막으로 평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주제에 대해 조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질문도 했던 시간이 정말 너무 재밌어서 다음에 독서토론활동이 있다면 또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다.</p> <p>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가장 큰 생각은 "내가 관심있는 것만 해서는 절대 성장할 수 없겠다."였다. 책에서도 이코노미 클래스의 사람들은 스포츠 신문이나 연예 주간지를 먼저 찾는 반면에 일등석의 사람글은 경제나 문화면의 신문을 보고 있었다는 부분이 있듯이 현재 위치에서 더 성장하고 싶다면 내가 관심있는 분야와 사람들 속에서만 있지 말고 더 다양한 분야와 환경,사람들에게도 눈을 돌려야겠다는 생각을 뚜렷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p>

	4	정다원 (2371272)	<p>평소에 책 읽는 것을 좋아해 이번 활동을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내가 도전해보지 않은 장르의 책이라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주차 별로 파트를 나누고 계획해서 책을 읽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게 됐다. 혼자 책을 읽을 때와는 다르게 조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다 보니 이 책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떨 땐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의견이 나오기도 해 신기하면서도 사고가 확장되는 느낌을 받아 좋았다.</p> <p>사실 이 책 자체는 내가 선호하는 내용과 어투는 아니어서 이 활동을 참여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평생 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고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이 독서모임이 더 큰 의미로 다가왔던 거 같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다시 참여하고 싶을 만큼 기다려지고 즐거운 시간이었다.</p>